

## ■ 실속 재테크

## 보험금 최고 150배…年 300만원 소득공제

폐업·부도때 목돈 지금…光銀 16개월간 150명 가입

납입 1년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 등 부가혜택 다양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폐업이나 부도 근심을 덜어주려고 만든 금융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 7월부터 판매를 대행해온 '노란우산 공제' 상품 가입자가 4개월 만에 3만6000여명에 달했다. 광주은행에서도 시행 1년4개월간 150여명이 가입했다.

지난 2007년 9월 첫선을 보인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4년여만에 가입자 수가 1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13만 1300명, 광주·전남 633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금액은 총 5800억원에 달한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들어 광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맡겼다.

'노란우산 공제'는 재권자의 입류가 가능 한 예금, 펀드 등 금융자산이나 부동산과 달리 이 상품은 압류할 수 없다. 공제금은 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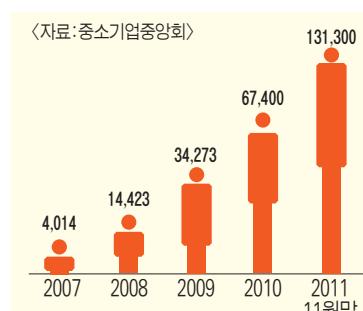
류·양도·담보가 금지돼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부도 공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다.

매월 일정액(5만~70만원)을 납입하다 폐업·고령·질병·부상 등으로 퇴임할 경우 생계유지 및 사업 재기를 위해 가입기간에 걸친 공제금을 목돈으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할 경우에도 공제금이 지급된다.

부자지원도 다양하다.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월 납입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성된 기금은 연금 보험상품처럼 복리이자율을 적용하고, 별도의 운영사업비는 폐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운영사업비를 공제하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상품

## ■ 노란우산공제 가입현황 (단위:명)



## ■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과세표준	세율	절세가능액(예시)
1200만원 이하	6.6%	198,000원
1200만~4600만원	16.5%	495,000원
4601만~8800만원	26.4%	792,000원
8800만원 초과	38.8%	1,155,000원

과 비교할 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1% 상당의 연복리 이자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세(稅)테크 상품으로도 타월하다. 납부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세표준이 연간 1200만~4600만원 이하

인 경우 49만5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79만2000원, 8800만원 초과는 115만5000원에 달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인과 소상공인만이 가입할 수 있다. 혜택이 풍성한 만큼 노란우산공제는 종종 가입이 불가능하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1개 사업장을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창사가 힘들어지자 곳은 날을 대비한 '우산' 차원에서 가입하는 고객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난해 말 출시한 '가맹 사업보증보험' 상품도 인기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사업자)의 영업이 어려워져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할 때 그동안 못 냈 물품대금이나 장비 사용료 등을 대신 내준다.

올해 초 매달 400~600건 가량의 가입건수를 기록하니 하반기 들어서는 10월, 11월 두 달 연속 700명 이상이 가입했다.

프랜차이즈사업자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폐업하는 가맹점 또한 속출하면서 이 상품의 인기가 높아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우리 경제가 드디어 무역 1조달러를 기록과 동시에 합미FTA시대를 열었다. 국제사회에서 원조받은 입장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돋움을 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한·중·일 FTA는 기존의 한·EU FTA와 더불어 새로운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구미 선진국들의 제조위기와 더불어 내년도 세계경제의 전망도 밝지는 않다.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성장률은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갈망한다. 글

는 자체이익을 극대화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 환경보호를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책임감의 중요성이다. 사회적인 책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인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기업윤리,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공헌 등 매우 포괄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단순한 환경활동이나 일부 이익을 사회로 되돌리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 지속가능 경영

로별 기업들은 미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지속가능 경영'을 꼽고 있다. 지속가능 경영은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지속가능 경영이란 지속적으로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행동이다. 미래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필수적인 전략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책임과 리더십을 통해서 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의 패러다임인 것이다.

지속가능 경영이 필요한 첫째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다. 기업은 여려가지 기법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운 극 대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영체계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 때 만이 기업은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다.

결국 기업들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라는 균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불어 환경적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현충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다.

우리지역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표준 제정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이제는 지속가능 경영의 트렌드를 읽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라는 작은 시야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 나아가 글로벌의식을 가질때만이 생동감있는 조직으로 거듭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생산성본부 혼자 지역본부부장〉

- ▲ KPC 지역발전정책자문위원
- ▲ 전국 e-러닝연합회 부회장
- ▲ 전남도 물가심의 위원



## 주얼리로 빛나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광주신세계 2층 제이에스티나 매장에서는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를 선보여 여성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전남 11억 달러 무역 흑자

광주·전남지역의 11월 말 누계 무역수지가 11억3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2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이 분석한 '2011년 11월 광주·전남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11월 말 누계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9.2% 증가한 491억7800만달러, 수입은 19.2% 증가한 480억7500만달러로 무역수지 11억3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중 광주전남 무역동향은 수출 43억2300만달러, 수입 44억 1100만달러로 8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광주의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8% 감소한 11억5300달러, 수입역시 15.2% 감소한 4억300만달러로 7억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남 수출은 화공품(35%), 석유제품(34%) 등이 주도해 전년 동기대비 25.8% 증가한 31억6900만달러, 수입은 원유(61%), 철광석(11%)이 늘어 24.4% 증가한 40억700만달러로 8억3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은행 中企 '설 특별자금 대출'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설을 맞아 자금 애로를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 2000억원, 만기연장 4000억원 등 모두 6000억원의 '설 특별자금 대출'을 내년 2월 10일까지 긴급 지원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대출은 '설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체불입금 지급, 원자재 구입 자금, 긴급결제 자금 등으로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40억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추가 상향 추진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의 추가 상향이 추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도 담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추가 상향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구체적인 수치는 못 넣었지만 큰 방향

은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학술대회 질의응답에서도 "카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하는데, 체크카드는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리려고 한다"며 "소득공제와 세제지원 문제도 (기재부와) 협의하는데, 상당폭 늘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 사용자는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20%, 직불 카드(체크카드 포함)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입니다

## 세기보청기

##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 (segistar.co.kr)

www.segistar.co.kr

## 광주 북문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 순천 청계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 ■ 전북 청송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561-4477

## ■ 전북 청송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561-4477